

금호주택, 광주여성재단에 적립기금 기탁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은 최근 광주시청에서 (주)금호주택 적립기금 기탁식을 가졌다. 김명균 (주)금호주택 대표이사가 지역 성평등 실현과 복지증진을 위해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여성재단 제공>

광주시치과의사회, 31사단 장병 구강검진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박정열)는 지난 10일 서영대·송원대·조선대치과병원 후원으로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31보병사단 장병 구강검진 및 치아사랑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시치과의사회 제공>

전남대정책대학원 총원우회 농촌일손돕기



전남대정책대학원 총원우회(회장 강창웅)가 지난 9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및 농촌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전남대정책대학원 총원우회 제공>

재광 나주향우회, 회장 이취임식



재광 나주향우회는 지난 7일 정기총회 및 유덕한 회장과 신임 김보근 회장이 취임식을 진행했다. <재광 나주향우회>

“등반과 경영 닮은 꼴 ... 도전 멈추지 않는 산악인 존경”

‘김흥빈 낭가파르밋 원정대’ 단장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

전문 산악인도 쉽지 않은 히말라야 낭가파르밋을 지역 기업인이 원정대와 함께 등반, 캠프 원(1·ONE)까지 등반해 화제다.

히말라야 낭가파르밋 원정대(단장 김흥빈) 단장을 맡은 중흥건설 정원주(48)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20일 원정대와 함께 출국해 일반 산악인도 힘들어하는 캠프 1까지 등반하는 등 13일 간 원정대와 일정을 함께한 뒤 지난 7일 귀국했다.

특히 지역 기업 중 대기업군에 오른 CEO가 2주간 자리를 비우고 히말라야 산행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대표는 귀국 후 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첫 고산 등반 경험이었지만, 견딜만했다”면서 “크레바스와 가파른 낙석 돌길 등 어렵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지역 산악인들이 존경스러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고도 4200m의 베이스캠프에서 고소 적응 훈련을 마친 뒤 캠프 1(4800m)까지 도전해 캠프를 구축하고 하산했다.

정 대표가 이번 원정대를 따라 나선 이유는 원정대의 김흥빈 대장과 새롭게 맺은 인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의 ‘힐링’과 함께 경영인으로서의 새로운 도전 정신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회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힐링·새 각오 필요해 함께 동행

고도 4800m 캠프 1까지 등반

장애 극복한 김흥빈 대장 계속 후원

터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각오와 힐링이 필요했다”면서 “휴일이면 자신들과 광주 인근 산을 등반하며 낭가파르밋 등정 준비를 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산행에서 등반도 기업경영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등반과 경영은 산악인과 경영자들이 정상을 향해 한발 한발 오르는 목표는 같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빠르고 급하게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숨을 돌리면서 차분하게 한발 한발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히말라야에서 올해 광주FC의 좋은 성적과 중흥건설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원정대의 등반 성공과 무사 귀환을 가장 많이 기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김흥빈 대장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 4월 히말라야 로체 원정대를 후원하면서부터다.

정 대표는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히말라야 낭가파르밋 원정대 정원주 단장(사진 왼쪽)과 김흥빈 대장이 해발 4800m 높이에 캠프 1을 설치하고 중흥건설 사기(社旗)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원정대 제공>

계속해서 도전하는 산악인은 세계에서 김흥빈 대장 단 한 사람”이라며 “특히 이러한 지역 인재를 보고만 있기에 안타까워 앞으로 김 대장과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후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김흥빈 대장의 로체 원정대는 네팔 대지진 참사로 인해 등반을 포기했고, 올해 낭가파르밋 도전에 나섰다.

정 대표는 “해발 1000~2000m에는 허브가 가득해 허브향기에 취했고, 해발 3000m부터는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반겨서 산행을 하는 과정에 이게 정말 ‘힐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

다”면서 “또한, 해발 3000m 높이의 고산 마을에서는 척박한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면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등반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낭가파르밋 원정대에는 히말라야 8000m급 14차 완등에 도전중인 김흥빈 대장을 비롯, 나경희(금호타이어)·서경채(정우종합유통 대표) 대원이 포함됐다. 김 대장이 낭가파르밋 정상에 오르면 14차 중 10개째를 등정하게 된다. 이들은 현재 해발 5900m의 캠프 2를 구축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만해대상에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수녀 등 6명

동국대학교는 제20회 만해대상 수상자로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티거·마가렛 피사레크 수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돌보는 데 평생을 바친 마리안느 스티거·마가렛 피사레크 수녀는 실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평화 부문 수상자인 국제개발 NGO 단체 로터스웰과 청수나눔선회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네팔 등 동남아시아에서 교육과 보육시설 등을 건립해 구호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예 부문에선 가수 이미지씨와 시인 이승훈씨는 50년이 넘도록 아름다운 노래와 시로



마리안느 수녀 마가렛 수녀

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문예 부문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만해축전 기간인 다음달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링고 스타 “비틀스 인지도 없어 美 진출 거절 했었다”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의 드러머였던 링고 스타(사진)가 과거 비틀스 멤버들이 미국 진출을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스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411 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진출 전 우리는 미국에서 인지도가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덴마크, 영국, 스웨덴에서 팬들은 우리를 아는데 미국인들은 우리를 모른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영국 리버풀에서 결성한 비틀스는 존 레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4명으로 멤버가 꾸려졌다. 이후 1964년 미국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스타는 “내가 사랑한 모든 음악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며 “미국으로 온 것은 내 인생에서 굉장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스타는 가장 기억할만한 공연으로 1964년 2월 9일 미국 데뷔 무대였던 ‘에드 쉐리번 쇼’를 꼽았다.

스타는 “7000만명이 TV를 시청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스타는 “7000만명이 시청했다는 점이 너무 좋다”며 사람들이 TV 시청에 몰두하느라 당시 “뉴욕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폭력과 범죄가 줄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중천회

- ▲광산시가 필문회(회장 이태고) 월례회=11일(월) 오후 6시30분 광주시 서구 월산동 우미추어탕 문의 010-5386-5755.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회(회장 이승암) 월례회=12일(화) 오전 11시 화순 동면 천궁폭포 062-225-5636.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062-1366.
- ▲사랑앓이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지원센터 062-351-3029.
- ▲광주남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사랑마루합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

- 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 ▲광주장애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해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모집

- ▲전남사랑의열매 차량지원 신청접수=22일(금)까지 복권사업 12인승 승합차량 문의 061-980-6819, 기획사업 경승용차·승합차·냉동탑차·세탁차 문의 061-902-6813, http://jn.chest.or.kr 참고.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

- 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장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 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 ▲디자인 슝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전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 속미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리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 ▲(사)‘장애인복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부음

- ▲김영렬씨 별세 경해서 부친상=발인 11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 ▲문정순씨 별세 정성배(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소 모친상=발인 11일(월) 전주 시 금성장례식장 402호 063-276-4444.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301호 故구수영 님(여/88세) 子/子婦 : 민중남/양인숙, 종영/김미화, 종현/김진희 女婿 : 민중순/서구석 *발 인 : 7월 11일 *장 지 : 화순읍 선영	401호 故김홍남 님(남/61세) 상주 : 김병남, 지남, 양수, 미연 조카 : 김세은 *발 인 : 7월 12일 *장 지 : 보성읍 선영
402호 故전영모 님(남/93세) 子/子婦 : 전재성/유연애, 박윤래, 배경순, 권미희 女婿 : 전화자/최병권, 민자/안영운 未亡人 : 이순임 *발 인 : 7월 11일 *장 지 : 선교동 선영	101호 故박전현 님(남/70세) 子/子婦 : 박기영/양사라, 기준/김미영 女婿 : 박기화/최진석 未亡人 : 이나영 *발 인 : 7월 11일 *장 지 : 영락동 선영
102호 故차중수 님(남/81세) 子/子婦 : 차준혁/김선희, 석민/양정순 女婿 : 차미화/서준걸, 미경/박덕수 *발 인 : 7월 11일 *장 지 : 영락동 선영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